

교회 목표

신앙관 예배
천국임교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서 3: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4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원 편집국장: 이형수

은혜의 숲에서 자라는 높고 푸른 나무들

청년1부 집회시간, 주일 낮 12시로 변경
서리집사임명 최저 연령도 낮출 계획

천국임교문 충현교회 젊은이들은 보편 복음화 바다를 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며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젊은이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눈물로 회개하며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젊은이들! 단기선교를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둥켜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젊은이들! 이들이 복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충현의 젊은이들이 다, 아, 누가 이들을 이렇게 기르겠는가? 깊은 산에 비를 내리시고 양분을 주사 거목이 가득한 푸른 숲을 만드시는 하나님, 바로 그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현의 젊은이들에게도 그와 같이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고등부·대학부 복음에 대한 열심은 저들의 모든 삶에서 드러난다. 일례로, '고대창'의 막내격인 고등부 학생들은 학교마다 '돌로스'라는 예배 모임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모여 예배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고대창'의 둘째격인 대학부 학생들(19세~24세)은 주일에 각 부서와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것은 물론, 국립의료원에서 찬양 사역과 전도를 하고 있으며, 봉천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회복지 시설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니, 참으로 주님께 감사할 일이다.

청년부·청년2부 아이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고대창'의 만행적인 청년1부(19세~29세)와 청년2부(30세~39세)도 이전보다 더 분발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청년1부는 이번 주일부터 주일 집회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정오인 12시로 한 시간 늦추었다. 그 목적은 청년들이 주일 오전에 교회 각 부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를 돌아보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 부친 청년들의 열심을 주님께서 복 주사 사용에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앞으로는... 본 교회는 그동안에도 천국임교 양성을 교회의 5대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기도하며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수고에 복을 주사 귀한 젊은이들을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본 교회는 앞으로도 젊은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 힘차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뜨거운 격려를 아끼지 않으려 한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서리집사 임명 최저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일꾼추천을 교구에서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등에서 교사로 성실하게 봉사하는 분들을 본교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 일꾼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오! 주여, 교회 가운데 젊은 일꾼들을 끊임없이 일궈주사 충현교회를 통하여 주 예수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2004년도 제2차 성찬식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 시에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이 즈음에, 2004년도 제2차 성찬식을 주님 앞에서 거행하게 되었다. 주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찢겨주신 살과 흘려주신 피를 대하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 위에 주께서 베풀어주시신 크고 작은 은혜가 있었으리라,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자. 그 은혜를 늘 찬송하자. 그리고 우리의 귀한 것을 다 바쳐 주

를 기쁘게 섬기자. 성찬식을 통해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은혜를 자주 누리면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나 헌신이 늘 제자리 걸음이라면, 이것 역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히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하도록 하자.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번주 화요일, 남여전도회 영성훈련

남여전도회 2004년도 제2차 영성훈련이 이번주 화요일 저녁에 전도위원회 주최로 갈릴리움에서 실시된다. 이번 영성훈련의 취지는 민족복음화와 이웃 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전도회 회원들을 영적으로 재충전시키는 것이다. 일찍이 주님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막 6:31a). 이는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자상한 배려였다. 이번에 실시되는 영성훈련도 그러한 주님의 따뜻한 선물이다. 그러므로 각 전도회에 소속되어 복음을 전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전도회 회원들은 꼭 이번 영성훈련에 참석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심을 얻으시기 바란다.

그 동안 각 남여전도회에서는 전도활동, 각종 지역봉사활동, 그리고 구제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려고 열심히 애썼다. 이 귀한 사역에 더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후시 민족복음화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아직까지 행동에 옮기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후시 우리 주변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각 교구 해당 전도회에 속하 가입하여 함께 손을 잡고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자.

일시: 3월 9일(화) 19:00 ~ 21:00

대상: 각 전도회 임원 및 모든 회원, 참여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어든 세상 밝히는 기도의 등불

계속되는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특별새벽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며 기도하는 이 행렬에 더 많은 성도들의 열심어린 참여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7면, '교회탐방' -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이번주 새벽기도회 주력교구

일시	교구	일시	교구
3월 8일(월)	3, 9, 15 교구	3월 11일(목)	6, 12, 18 교구
3월 9일(화)	4, 10, 16 교구	3월 12일(금)	1, 7, 13 교구
3월 10일(수)	5, 11, 17 교구		

오늘 CMTC 일정

1 교시(18:10~19:10)	장소
충현교회의 선교정책	갈릴리움
2 교시(19:20~20:20)	장소
선교의 성경적 기초	갈릴리움

*4월에는 CMTC가 없습니다.

4, 5월 출발일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어훈련 강의시간 변경(오늘, 3월 7일부터)

매주 일 오후 3:20~4:00에서 3:00~4:00로 변경

(영어는 변동없음) 자세한 사항은 5면 참조

God's Great Invitation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and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compassion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Isaiah 55:6-9)

In today's Bible passage, we find God's great invitation to salvation. This beautiful gospel, which is God's grace, offers abundant pardon and eternal love as a gift to all who accept it. There is a condition; one must "seek the Lord". To seek the Lord means your heart is ready to repent. Repentance is a necessity. You cannot go before the Lord without the desire to change, turn back, or return to Him. When you repent, the Lord God will forgive and cleanse your sin. He will make you free.

Salvation cannot be bought, only received as a gift. "Ho! Every one who thirsts, come to the waters; and you who have no money come, buy and eat. Come, buy wine and milk without money and without cost. Why do you spend money for what is not bread, and your wages for what does not satisfy? Listen carefully to Me, and eat what is good, and delight yourself in abundance. Incline your ear and come to Me. Listen, that you may live; and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you, according to the faithful mercies shown to David"(vv. 1-3). God will provide everything you need. He will give you the strength, encouragement, and faith to reach heaven. Why pay for a religion that cannot satisfy when you could have eternal life as a gift?

Human beings need to be converted. Perhap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oday's message is verse 7,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and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compassion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When you repent, God abundantly pardons. God cannot compromise with sin because He is righteous. As such, you have to get rid of your sin in order to relate with Him. This is the message of the Gospel: God cannot allow sin, but He will deliver you from sin. Of course, this perspective only deals with the past facts. Salvation is always moving forward, hence the need for conversion. In conversion, one finds the immeasurable work of God through the Holy Spirit.

What is conversion? Conversion is life. What is life? Life is your ways and your thoughts.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Throwing away your ways and thoughts is conversion. It deals with your nature and customs, like selfishness and pride. Whatever you have learned, whatever you think, whatever makes you happy is the general way, the wide way, not the narrow way. God says you need to throw all that away. Why is that?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God is yelling for you to throw away your ways and thoughts of

life.

When you think your thoughts, it means you are thinking without the Word of God. The result of your thoughts makes the devil happy. It makes you blame repentance, find excuses, and complain to God. Throw away your thoughts, and return to the Lord. Throw away your pride, neglect, hostility, mistrust, and disobedience. Return to the Word of God. You have to seek Jesus Christ. You need conversion. The nature of conversion is the throwing away of your ways and thoughts. The Gospel converts you, and allows God to give you abundant pardon. God clearly promises this, and His promises are always possible, never impossible. When you return by throwing away your ways and thoughts, your sin, God's power immediately starts working on you. It is a miracle.

You have to ask the Lord to make you return and throw away your ways and thoughts. "Restore us to You, O Lord, that we may be restored; renew our days as of old"(Lam. 5:21). You cannot return by your own will. God has to do it. Jesus is the one whom God "exalted to His right hand as a Prince and a Savior, to grant repentance to Israel, and forgiveness of sins"(Acts 5:31). The Gospel comes through Jesus Christ who has shown us in the Law that no one can be righteous without faith. Through Jesus Christ, whoever believes is made righteous. Acts 13:38-39 says, "Therefore let it be known to you, brethren, that through Him forgiveness of sins is proclaimed to you, and through Him everyone who believes is freed from all things, from which you could not be freed through the Law of Moses." Amen.

Forgiveness comes when you get involved with the blood of the Lamb. It is more than enough, clearly just and safe, and so easy. All you have to do is believe. Get rid of your ways and thoughts. All sinners, think about it right now. Pray hard for God to make you change your ways and thoughts. Please do not destroy yourself. There is a new way and blessing. At the moment of conversion your life changes. God declared,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Please do not delay in answering God's invitation. At this point, ask God to change your ways and thoughts, and lift you in His direction. As we follow Jesus to Calvary Mountain on this 3rd Sunday of Lent, let us pray together, "Jesus, help me, let me deny myself and take my cross because I want to follow you." 🙏

다음주일 설교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¹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²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³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6~9)



김성관 목사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이 놀라운 복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죄 사함과 영원한 사랑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이 초대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조건입니다.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변화받고 싶은 소원, 죄로부터 돌아서고 싶은 소원, 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소원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정결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구원과 돌이킴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꿀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쁨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사 55:1-3).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힘과 격려와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종교를 위해서 애 헛고개를 하려 하십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므로 죄와 타협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에게 있는 죄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자들과 같이 요약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충 넘기시는 법이 결코 없으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물론 이런 관점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항상 앞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회심(돌이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돌이켜 그리스도를 찾으라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회심은 삶입니다. 삶은 무엇입니까? 삶은 여러분의 길과 생각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의 길과 생각을 버리는 것이 회심입니다. 이기심이나 교만같은 본성과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 온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을 기본 총체하는 모든 것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 버리고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8절).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의 모든 길과 생각을

버려라.”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생각은 결국 마귀를 기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생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를 비난하고, 죄에 대한 핑계들을 찾아내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과 게으름과 적개심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모두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길을 버리는 것이 곧 회심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널리 용서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길과 생각, 곧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돌이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 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움에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에 5:21).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는 자신을 주께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이켜 주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행 5:31).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해 보여주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 보여주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죄 사함은 여러분이 어떤 양의 보혈과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집니다. 죄 사함을 얻는 길은 완벽하고, 완전히 공평하며, 안전하고 매우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길과 생각을 버리십시오. 죄인들이여,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길과 생각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멸망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새로운 길과 축복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9). 하나님의 초대에 빨리 응답하십시오. 미적거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길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사순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장로 칼럼

복음과 이 땅의 이방인 나그네들



임 우진
(장로, 건축위원·외선부 부장)

우리 교회의 4부 예배 시 본당 2, 3층은 마치 낯선 외국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것도 20여 개국의 나라에서 온 젊은 근로자들로 북적거린다. 모두가 헤드폰을 끼고 예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복음은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나온다. 이것은 어느 누가 제안하거나 강요해서 될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교회가 이미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렇다할 혜택(?)을 주지 않는 데도 찾아 나오는 것을 볼 때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든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구 소련과 회교권 지역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충현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들을 향해 마련해 놓으신 피어저 추수해야만 하는 넓은 밭(요 4:35)이며, 하나님께서 이사를 라엘을 향하여 명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할 땅의 나그네들(산 10:19)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국내 외국인 근로자 선교부' (이하 외선부)는 1996년 1월 3일 예배시 소리감 카인 1명을 시작으로 하여 2004년 현재 15개국(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이란, 베트남, 필리핀 등)에 제직 220명, 평균출석 160~180여 명으로 성장하였다.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원한 생명보다는 대부분 돈을 벌고 이 땅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다종교인들이기에 이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 놓고 말씀 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눈물의 기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외선부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위생 문제, 임금체불 문제, 의료혜택 등의 문제들과 구제와 단순한 방관 위주의 활동, 흥미위주의 행사, 입맛에 맞는 식사제공, 편리한 교통편 제공 등과 같은 것에 복음중심보다 더 초점을 맞추는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복음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는 '취직이나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러 온 오교로고'라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서는 오교로교회로 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면 충현교회로 가라'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복음중심을 통한 외선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다(골 1:28). 즉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되어 살아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서 복음에 착박한 교회와 교당 땅에 돌아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최종목표인 것이다.

이렇게 변질되지 않은 복음이 꾸준히 전해 나가자 전경으로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이 자기 밭으로 찾아오며 이들 중 매년 30여 명 정도 신학교육과 제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단기선교의 언어장사로, 4부 예배의 통역의 일을 하기도 한다. (주간 충현)에 발표하는 그들의 간증을 보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충현교회에서 맛보 누리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헌신하기로 작정한 형태자매들 중에 충현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매년 생겨나고 있다. 나아가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미 몽골에서는 외선부 출신 형제가 가정교회를 시작하였고 몰도바에서도 곧 가정교회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교회는 그들을 현지사역자로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이미 스리랑카에 한 사람이 세워졌고 앞으로 외선부 형제들이 귀국하는 각 나라마다 이러한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 지원하고 그들이 정식 신학교를 하고 전문 목회자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다. 이 열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은 단순히 저들을 도우주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들이 철두철미 복음으로 무장되었기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외선부는 매주일 오전 11시, 몽골, CIS 6개국, 중국, 스리랑카의 4대 언어별 독립 예배팀과 나머지 7개 국이 함께 드림 예배를 드리고 본당 성경공부를 하고 4부 예배에 참석한다. 그러나 최근 어떤 불법 체류 근로자들을 강제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종교가 다르거나 예수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에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로 양육해 줄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다. 현재 외선부의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는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술, 담배에 젖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예배 시간에 늦기도 하고 잠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중의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베드로, 바울처럼 변화되어 자신의 민족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선교 현장에서 모두가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방식이 얼마나 무식하고 비합리적이고 미련한 것인가! 그나마 밀라라도 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건만 우리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데 신도 밑에서 거침없이 있는 것이다. 그런 도전을 1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음과 같이 외선부 교사들이 아무리 울고불고 한다면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헛일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대할 때마다 소순간간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뢰하고 부탁하고 구원하기를 주님께 감사 드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 가면서(마 16:24)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곤 한다.

진한 수요예배 매시지

군건히 서라 (갈 5:1-6)

갈리다야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십자가의 은총을 알게 되었다. 고인들이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영적으로 흔들리는 교회로 되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다른 복음은 전했기 때문이다. 갈리다야 교회는 이런 가르침에 넘어갔고 흔들렸다. 이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무거운 종의 멍에를 지니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라' 그렇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골로새로 가서 주님을 따르라는가? 그렇지만,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므로 굳게 서라 -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한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착한 일을 하거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려는 것에 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인간이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다 이루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어긴 대가까지 다 지불하셨다. 그런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가? 전에 철저한 율법주의였던 바울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롬 8:2). 이러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는가? 이런 간증이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불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성령을 정하시라'(롬 8:3).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일을 하셨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친히 해 주신 것이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자는 사람들을 그 일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하는 셈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런 이단적색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인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여러분의 아들의 명분을 얻으셨다(갈 4:5). 이 사리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사순절 중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도로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 위에 굳게 서도록 하라.

법에서 자유함으로 굳게 서라 -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갈 5:2-4). 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말씀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의식과 법이다. 물론 이것들도 필요하고 중요하나 신앙의 본질은 될 수 없다. 의식과 신과 도덕과 양심 등은 본질이 아니며, 우선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만들고 그 법을 매어는 안 된다. 우리가 교사로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가 되자. 하지만 이것도 법이다. 어느 신학교 연례에 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밭을 갈아 너희를 도우지 않을 것이니 너희를 행하는 대로 너희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22:23). 왜 주님은 이들을 모른다 하십니까?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로 법을 강조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율법은 법이 있고자 하는 자들은 '자주 마려' 같은 강박이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더라(골 3:1).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자.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 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자. 이제는 믿는 자로서 순종하고 어인이자처럼 될지. 왜요? 또 어떻게요? 라고 따지길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

믿음 위에 굳게 서라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렐루야 무절제한 축이 없되 사랑으로서 익히시는 믿음뿐이니라(골 3). 놀라운 것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가하는 특권이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영광이다. 그리고 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비록 우리가 지니지 않고 다름을 지니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만이 저의 의요 소망입니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의의 소망은 믿음에 의한 것이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신 것이다.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소망을 이루게 된다. 세상의 불확실한 소망과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비 바라리라'(롬 8:24). 이 땅의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참된 소망은 하늘 나라의 생명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어떤 인생을 가진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해 준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때에 이르러 그와 함께 영생을 얻게 나타내리니 그리스도의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영광이다. 이 것은 이제를 위하여 곧 율법과 부정부와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욕은 उस 송배나(골 3:4). 우리의 길이 믿음의 길임을 말한다. 이 길은 땅에 있는 자들을 죽이는 좁은 길,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마침내 영원한 영광이 있다. 우리의 삶이 길이 행할(가)를 바란다. 주께서 이 길로 행하는 모든 신자들을 불러들이실 것이다.

캄보디아 땅에 임할 복음의 역사를 소망하며

연약한 지예에 단기선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캄보디아 땅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선교를 다녀온 팀들이 선교지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지난 12월에 시작된 3개월 간의 준비모임이 한 주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생소한 언어를 배우고 말씀과 기도도 준비했던 시간들을 통해 그 땅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더 크게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지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땅에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16).

이민영 (직원B)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2월 23일(월)~3월 2일(화)	D	대학부	정태두

◆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3월 12일(금)~3월 20일(토)	B	직원B	진종용

*선교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기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CMTC 언어훈련 일정 (매주일) 장소

언 어	시 간	강 의 실	언 어	시 간	강 의 실
몽 골	15:00~16:00	제1교육관 309호	우즈베키스탄	15:00~16:00	제1교육관 204호
러시아	"	베디나홀	방글라데시	"	제1교육관 303호
루마니아	"	제1교육관 501호	캄보디아	"	제1교육관 206호
중 국	"	제1교육관 405호	키르기스스탄	"	제1교육관 202호
우크라이나	"	제1교육관 301호	영어(초급)	18:10~19:00	제1교육관 401호
불가리아	"	제1교육관 401호	영어(중급)	"	제1교육관 204호
인 도	"	제1교육관 307호	영어(고급)	"	제1교육관 206호

휴 강 : 스리랑카, 리오스, 파키스탄(3월~6월), 미얀마, 베트남(3월~4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일 시 : 2004년 3월 10일(수) 수요 2부 예배

대 상 : 실행위원, 팀장, 상반기 사역 종료팀 및 예정팀, 기도로 동역할 모든 성도

대학부 방글라데시 선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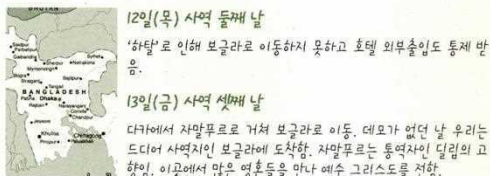
날마다 한 걸음씩

2월 11일(수) 사역 첫째 날

다카 성서공회를 찾아 쪽복음을 구입하고 방글라데시에서의 선교가 왜 어려운지 하는 설명과 성서공회의 활동을 듣고 힘을 얻어 다카대학 아트센터에서 선교를 함.

"보글라로 이동하지 못 하고 다카 대학교로 가서 전도를 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그말이 이해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나의 말이 부정확했는지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하였고 그 때 반격하지 않았다. 답답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점점 힘들었다.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줄임 뿐이니 누가 알아줄 것을 바라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다짐했다." 김지희(대학부)

*도착한 첫 날부터 우리는 두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다. 첫째는 하루 건너 실시 될 하탈(Hartal)이라는 대모가 선포됨으로써 자동차 운행이 전부 정지되어서 다카에서 보글라로 이동이 어려워졌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보글라에서 세계 청소년 크리켓 대회*가 시작되어 숙소 예약이 어려워진 것이다.



12일(목) 사역 둘째 날

'하탈'로 인해 보글라로 이동하지 못하고 호텔 외부출입도 통제 받음.

13일(금) 사역 셋째 날

다카에서 자발적으로 거처 보글라로 이동. 대모가 없던 날 우리는 다카에서 보글라로 도착함. 자발적으로 통역자인 길의의 고 함임.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

14일(토) 사역 넷째 날

보글라 근처 반만디 마을 등을 돌며 사역함.

"오늘 또 다시 대모가 열려 차량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대신 리샤(리격)를 타고 전도를 하러 나갔다. 하루 종일 온 마을을 걸어서 돌아다니며 노파천도와 축조천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군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전도자료와 쪽복음을 받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할 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고, 알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종종 강하게 거부로 표시하여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좋았다." 강성연(대학부)

15일(주일) 사역 다섯째 날

계획대로 마이크로 버스로 '가이만다'로 이동. 다섯 개 마을에서 전도함. 3년 전에 알게 된 두말을 반갑게 만남. 두말은 힌두교 지도자인데 그가 복음의 첫 열매가 되어 그로 인해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기를 기도함. 그에게 성경을 전하였고, 그의 가족 모두와 이사를 나눔. 또한 마을 주민과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

16일(월) 사역 여섯째 날

보글라 근처 7개 마을 걸어나며 전도함.

"제3차 하탈이 선언이 되어 리샤를 타고 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찾아 선교를 하러 나갔다. 나는 오늘도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젊은이들의 용기에 어떤 수 없이 강행하게 되었다. 길 위에서 눈에 보이는 동네들을 크게 돌아서 오면 하루 '같이 될' 것이란 팀원들의 요청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앞장 서서 인도하였다." 윤석민(장로, 팀장)



17일(화) 사역 일곱째 날

보글라 근처 7개 마을 걸어나며 전도함.

작년에 방글라데시에서 만난 청년 중 예수님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날 지장을 다니는 영혼을 만나고자 찾아가. 그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내를 만나 그의 이름이 시봉인 것을 알았고 시봉과 함께 잘 훈련된 다른 동역자 줄론을 만난다.

18일(수) 사역을 마치며

방 비행기로 서울로 출발함.

"선교를 끝내고 팀원들에게 무엇이 좋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리샤를 타고 사역지까지 가요했던 것 그리고 하루 종일 걸어나면서 선교한 것이 좋았다고... 그리고 끝없이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힘겨웠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현지인들이 만든 '아 멘'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같다는 가능성을 느껴서 오고 싶어짐 점 등이라고 했다." 윤석민(장로, 팀장)

주의 성실함을 힘입어 걷는 길

오늘날에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많으나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적으며, 위로를 원하는 자는 많으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분의 잔치에 동참하려는 자는 많으나 함께 즐기자는 적다. 모든 이가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하지만 그분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라도 기꺼이 받으려는 자는 드물다. 떡을 떼는 대가치 예수님을 좇는 자는 많으나 고난의 잔을 마시는 대가치 이르는 자는 소수다. 그분의 기적에 감탄하는 자는 많으나 십자가의 지옥에까지 그분을 따르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랑해서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버렸고 무모한 방탕에 빠져 온갖 신념들을 사탄을 넘겨 주었다. 영적 오염은 환경오염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최근 삶이 낡은 쓰레기가 슬그머니 우리의 영의 토양과 언행의 시냇물에 스며들어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어 버렸다. 미신과 우상숭배는 두꺼운 겹겹을 만들어 놓아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비와 구원의 말씀에 문금해지게 만들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너희 목은 땅을 갈아엎어라'(렘 43장)라고 호소한다. 땅을 갈아엎는 행위는 회개를 가리키는 비유이다. 화려한 옷과 깊은 화장을 통하여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예레미야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곳에서 있었고 종교적인 성투여 내뿜었다. 그리고 그들의 만사형통을 생각했다. 그들은 바른 장소에 있었고 바른 말을 했지만, 결국 그들 자신은 올바른 상태가 아니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른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는 것은 마치 외양간에서 새가 말뚝을 소리를 낸다고 우리가 말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돌이킬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길에 있는가 확인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길 길 곧 선한 길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렘 6:16).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안내를 무시할 경우 우리는 장미밭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 길은 좁은 길이며 끊임없이 걸어야 하는 길이다. 나의 모습, 나의 조건, 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령이 크도소이다"(예 3:22,23).

정진 호(목사, 7교구지주)

내게 보여주시는 십자가 사라

이 민 정(고동부)

저는 확실한 믿음이 없지 그제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1시간을 예배당에 앉아만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함께 다니던 교회친구들 때문에 방향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천주교회 고동부에 와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찬양을 통해 저를 만나주셨던 주님의 사랑은 정말 감동시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가오니 주님의 사랑이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면서나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슬프게 느껴졌어요. 왜 날 사랑하시는 건지, 나같이 우익한 죄인을 왜 죽이기까지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하며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던 중 주님을 알게 음성을 들리셨어요. 너무 힘들어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만은 항상 제 안에, 제 앞에, 또 제 뒤에 계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분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 감사 찬양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제게 그에 비교하지 못할 십자가의 사랑을, 어떤 평생을 가도 다 알지 못하여 매일 주님을 배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약한 입술을 열어 온 몸과 정성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나를 부린다고 그 십자가, 주님만을 위할 수 있도록 하소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이 제 삶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남보다 남보다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게 하시어 그 사랑 더욱 깊어 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평생을 고백하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내게 주를 사랑한다'(시 18:1).

여호와 아래의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이미 예배해 두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중동1부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 마땅히 드러져야 할 예배의 참된 의미를 배우며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의 합당한 모습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거꾸어 일동부터 팔동까지의 숫자로 비교되는 것에 지친 아이들에게 먼저 대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주님, 중동1부 아이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 누리는 예배의 특권을 알기 전에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만 듣는 생각을 하고, 입으로 떠들고, 손과 발은 천구와 장난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예배의 귀함을 배우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영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난 후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힘 있게 증거하고, 손과 발은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자신의 결심만으로는 거룩하게 되질 수 없는 죄인들이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수 없는 우리지만,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들을 고쳐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중동1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중동1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혜 선(중동1부 교사)

늦은 길? 지름길!

고3 때까지 저는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시고 기도했지만 첫 수업을 보고 이리저리 원수를 넣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될 때를 기다려, 그러나 대학부 1학년 겨울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오랜 기도에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역사를 좋아해서 그방면으로 공부하고 싶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진짜 역사를 공부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것절한 마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물론 예수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아쉬움 마음도 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며 힘들다는 예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6개월은 오전엔 공부, 오후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7월 말에는 여름수련회를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수련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수련회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하였고 그 후로는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주일만큼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물에서 받은 예수 생활을 위한 기도문으로 큐티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집회와 토요일에는 대학부, 그리고 주일에는 공부물과 벨엘성가대에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를 훈련시키셨고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두려워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나를 안고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붙잡게 하신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교회와 예배와 집회에서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된 십자가의 복음이 저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 주었습니다. 두 번째 수습기능을 보러 들어가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을 느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두 맡겼습니다. 이제는 정말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늦은 길도 빠른 지름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수나 삼수를 생각하는 후배들과 동기들에게 확실하게 말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할 수 조차 없음을 만큼 크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사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 고난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위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두려워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로 거둔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9). 아멘.

김희 진(대학부)

●물부● - 대학 지혜를 위해서 다시 공부하는 지혜를 가운데 대학부 토요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혜를 위한 소그룹 모임이다. 함께 열심히 나누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 받으며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는 형제 모임이다.

시간 : 매 주일 오전 10:30~12:30

장소 : 제2교육관 3층 대학부교실



교회탐방 ㉞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는 어떻게 준비될까? 제일 먼저 준비되는 것은 난방이다. 새벽 3시가 되면 기계설 컴퓨터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본당에 난방이 들어간다. 따뜻한 기운이 텅 빈 예배당을 덮일 즈음인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정문 경비 집사님들께서 본당의 문을 열어 교인들을 맞이한다. 일찍부터 나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4시 30분이 되면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돕기 위하여 찬찬한 연주 음악이 스피커를 통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일반 회중석을 비추는 조명이 들어온다. 이 일

은 음양실에서 담당한다.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된 첫 날(2월 25일), 평소보다 일찍 성도들이 본당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력교구 작석부 조국경 재직되나 4시 35분 경에는 이미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모여들었지만 차분히 기도를 준비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어느 때와 다를가 없었다. 아냐, 기도하는 성도들의 뒷모습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진한 모습이 엿보였다. 4시 45분 경에는 강대상을 비추는 특수 조명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본당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주력 교구 작석에는 금요일회와 평일회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었다.

드디어 4시 50분, 인도자의 찬송 인도를 따라 성도들이 아루의 첫 찬송을 주님께 정성스럽게 올려 드렸다. 이른 새벽이랴 목이 다 풀리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주님을 향해 간절했고 찬송도 뜨거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다시 찬송가 한 장을 더 부른 후에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의 첫 부분을 본문으로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다. 아, 아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이냐! 5시 30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친 후, 성도들은 각자 조용한 자리에서 개인 기도를 시작했다.

약 10분 분간 오르간이 연주되는 사이, 성도들의 기도는 더 깊어졌고, 주님과의 교제도 풍성해지는 듯 보였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주를 향해 양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 마음을

쏟아 조용히 기도하는 성도... 기도는하는 모습은 달관지만 아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듯 했다. 오르간 연주가 끝나고 다시 찬찬한 연주 음악이 6시까지 본당에 울려 퍼졌고, 그 사이 아침은 밝아오고 있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는 성도 몇 분을 만나보았다.

- ♡ '사순절 새벽기도회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더욱 깨달아 매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 김태민 (집사, 1교구)
- ♡ '염미가 함께 가지고 하셔서 새벽기도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강해져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도합니다.' - 문성희 (소녀부)
- ♡ '저는 불신 가정의 막내 며느리로서 예수님을 숭배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되보다 오�히려 주님과의 교제가 적어질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를 따라 정하여 기도하면서 남다른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전된 교사와 구역장의 지도를 받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민화순 (집사, 3교구)
- ♡ '예전부터 새벽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하루를 말하고 기도 시작함으로써 주님께서 하려하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나 속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 윤상영 (청년부)



(정리 / 편집실)

♡ 교구 안에서 만난 예수님 ♡

작은 자(小子)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는 어디로 선교를 가게 될까?'가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 되돌아보면 선교에는 별 관심도 없고 그것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CMTC훈련을 받았다. 몸이 피곤하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흠에 가득 찬 성도들을 보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내가 구원받기 전, 내가 알지 못하는 훨씬 전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이 힘들고 또 현재의 사역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값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날로날로 깨닫게 되었다. 인도도 서툰데 전도지도 간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말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는 있을 수없는 일임을 알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를 찾게 돌아오면 감사하지만 한 두 사람이 모이거나 반응도 별로 신통치 않으니 감사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지금 와 돌이켜 보면 영혼을 구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안에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모자랐던지...

있는 양 한 마리를 찾으려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다. 사람들은 아흔아홉마리에만 관심을 갖고 감사하는데 있는 양 한 마리를 찾아나서시는 예수님, 버려지고 기진 들린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껏 작은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내가 바로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잃은 양이고, 죄인이고, 작은 자였다. 그리고 그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어떻게 말로 다 감사할 수가 있을까. 또한 이제는 부족함을 나를 사용하시어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껏 작고 미련한 것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할 뿐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지식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래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 것을 생각하니 나 자신을, 내 시간을 그리스도에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감사와 헌신이 날마다 내 안에 넘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김 지 은 (권철, 13교구)

♫ 다음 주일 찬송

316장 '목마른 자들아'

다음 주일 찬송인 '목마른 자들아'는 요한복음 4장14절에 있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다. 특별히 1절과 3절 가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묵상해 보자.

- 1절 :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때문에 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목마른 자의 목을 축일 수 있다는 심령으로 찬송해야 한다.
- 3절 :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와 만남에서 볼 수 있듯이 오직 예수님이 주는 물이 영원히 솟아 나오는 물이며 영원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기에 결코 갈증이 없음을 기억하여 찬양해야 한다.

우리의 죄와 슬픔이 아무리 크다해도 진정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회개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온총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갈한 목을 축이게 하시며 영생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찬양위원회)

세 · 가 · 록 · 음 · 화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67	양승진	19	대학부	최민석(4)	283	공관원	10	소방부	박준근(8)
268	박성일	19	대학부	김성호(3)	284	문영숙	10	장년3부	박준근(8)
269	박경희	19	대학부	이하나(16)	285	소보림	10	청년2부	윤필재(10)
270	성지나	19	대학부	성바오(19)	286	강준혁	13	장년2부	
271	조홍중	19	청년1부		287	조준하	13	장년3부	
272	김종수	19	청년1부	김병환(16)	288	강진희	13	대학부	
273	지문경	19	청년1부	오민선(9)	289	강원희	13	대학부	
274	안성일	19	청년1부	이선화(2)	290	이유정	14	고등부	정광순(14)
275	장길목	19	청년1부	강동화(9)	291	유선진	17	청년2부	박은숙(6)
276	김영준	19	청년2부		292	권준영	19	중등부	임지희(16)
277	장 준	3	대학부		293	유용원	19	고등부	
278	최시정	5	장년2부	김말재(3)	294	조아라	19	고등부	
279	양하나	5	고등부	김말재(3)	295	박준모	19	고등부	
280	정근희	7	청년2부		296	최아름	19	고등부	정경희(10)
281	김일주	7	청년2부		297	김영희	19	청년1부	
282	김순식	8	소방부	전상록(8)					

※ 송헌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세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임

-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